도시 부부의 결혼만족도 변화 패턴

Developmental Pattern of Marital Satisfaction

상명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전임강사 鄭 賢 淑

Dept. of Family & Child Welfare, Sang Myung Univ.
Assistant Professor : Chung, Hyunsook

〈목 차〉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Ⅱ. 연구 방법
Ⅲ. 연구 결과
Ⅳ. 논 의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objective picture of developmental pattern of marital satisfaction of couples based on family life cycle, length of marriage, marriage cohort, birth cohort and age of couples, using data from 317 couples in urban cities.

The result indicate that the U-curve of marital satisfaction is the special pattern of family life cycle, while W-curve is more dominant pattern when data are analysed with length of marriage, birth cohort, and marriage cohort.

The couples differ in their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through entire their life span, which seems for wives to become more dissatisfied over time. The similarity of developmental pattern between the spouses appears only in their birth cohort.

Discussion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of the marital satisfaction are suggested.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가족의 여러 특징은 가족의 형태, 가족생활주기[1]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양하다. 많은 가족 학자들은 이 세 가지가 가족을 이해하는 기초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가족 연구에서도 가족의 행

동을 이해하는데 가족생활주기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유영주, 1991; Aldous, 1978; Langman, 1987; Mattessich & Hill, 1987).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는 일반적으로 결혼에 의해 형성된 가족이 출산이나 사망, 자녀의 성장, 은퇴 등 외부사회와의 관계변화에 따라 거치게 되는 일련의 발달단계로 정의되고 있으며 Duvall(1977)에 의해 체계화된 가족발달이론의 중요개념 중 하나이다.

가족학 분야에서 가족생활주기의 개념이 도입되어 두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첫 번째 분야는 각 가족발달 단계의 특성 및 현상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맞춘 연구이며, 또 한 분야는 가족생활주기를 독립변인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가족사적 변인 즉, 생활수준, 주택선택, 여가시간의 이용, 부모역할의 만족도, 생활만족도의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연구들이다(정현숙, 1991). 특히 후자의 경우 많은 학자들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적응도의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eg, Burr, 1970; Rollins & Feldman, 1970; Schumm & Bugaighis, 1986). 이들 연구에 의하면 결혼만족도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곡선적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결혼만족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U자 형의 곡선을 그린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대한가정학회, 1990; 서동인 · 정현숙, 1994).

결혼만족도가 곡선적 관계를 나타내는 이유는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 한 예로 1970년과 80년대에 주로 연구되었던 부모의 심리적인 복지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녀들의 영향에 대한 연구로부터 자녀들이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자녀들의 존재 자체, 특히 성인자녀들의 존재는 부모들에게 많은 긴장과 우울을 가져다주어, 자녀가 있는 부부가 부모가 아닌 사람들보다 만족도나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Glenn & McLanahan, 1982; McLanahan & Adams, 1988; White, Booth, & Edwards, 1986). 또한 부모기로의 전환이 부모에게 많은 긴장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모기로 전환함으로써 얻게되는 긴장 등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기도 하였다(이숙현, 1990; Russel, 1974).

반면 자녀의 부정적인 영향을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생기는 역할의 변화로 설명하기도 한다. 즉, 자녀 출생 후 자녀에게 쏟는 시간과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부상호간에 향하던 에너지는 줄게 되며, 이로 인해 부부간 갈등이 증가하고 상호작용의 궁극적인 붕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Kurdek, 1993; White et al., 1986). 이러한 주장은 결혼만족도와 부모의 복지에 함께 영향을 미치는 부모역할만족도 변인과 이에 상응하는 중요한 변인인 여성의 역할, 즉, 여성의 고용과 가사일의 분담을 함께 연구한 결과에서 지지되고 있다(Goldsteen & Ross, 1989; Ross & Mirowsky, 1988; Schumm & Bugaighis, 1988).

그러나 결혼만족도와 가족생활주기의 U-곡선은 자녀의 효과 뿐 아니라 결혼기간, 결혼코호트(marriage cohort)의 효과 및 자녀로 인해 이혼을 단념한 결혼생활이 불행한 집단의 비율이 높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Glenn, 1990; Glenn & McLanahan, 1982; Lavee, Sharlin, & Katz, 1996; White et al., 1986). 우리나라의 가족주기 분석에서

1) 가족생활주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많은 논란이 있으나,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장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분류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연보(1994)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족은 핵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숙현(1990)의 중산층 부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동인과 정현숙(1994)의 도시가족의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장자의 나이를 중심으로 분류한 가족생활주기를 분석한 결과 결혼기간과 부부연령, 첫 자녀의 연령이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어 장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분류한 가족생활주기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편부모가족과 이혼가족 등의 가족유형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족은 어느 정도 일정한 생활사건을 가진 생활주기를 경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장자의 나이를 기초로 가족생활주기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녀의 효과를 측정하는데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출생 코호트보다는 혼인코호트의 가족생활주기가 더 유의함을 밝힌 박혜인(1987)의 연구를 기초로 볼 때 혼인 코호트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혼만족도의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연구가 되었으나 혼인코호트나 출생코호트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결혼만족도가 자녀의 출생후 감소하는 이유가 결혼기간의 효과인가 혹은 부모기로의 전환에 따른 긴장이 원인인가에 대해 White와 Booth(1985), Michale과 Huston(1985)은 결혼기간의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부부 중심의 서구사회에서는 자녀의 출생이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되어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혈연에 의한 가족주의가 강조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부부가 일심동체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이숙현, 1988). 또한 첫 자녀 출생이라는 변화에 따른 어려움으로 비록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지적되고 있으나 이런 어려움은 자녀로 부터 얻는 만족감으로 인해 많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숙현, 1990). 그러므로 결혼기간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의 변화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인 시도로 가족생활주기와 결혼기간, 결혼코호트, 출생코호트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특히 평균수명은 증가하나 이혼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결혼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결혼만족도나 결혼적응의 변화 패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어떠한 패턴을 나타내는가?

2. 부부의 결혼기간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어떠한 패턴을 나타내는가?

3. 결혼코호트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4. 출생코호트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단일차원의 결혼만족도 척도로 우리나라(eg, 김득성, 1989)와 외국에서도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Schumm, Nicoles, Schectman과 Grigsby(1987)의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KMSS)을 이용하였다. KMSS는 '당신은 당신의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당신은 배우자로서 아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당신은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의 세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매우 불만(1)에서 매우 만족(7)의 7점 Likert척도로 높은 점수는 결혼전반에 대해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MSS의 내적합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남편 척도는 α = .92 이며, 아내 척도는 α = .95 이다.

가족생활주기는 장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자녀가 없는 신혼기, 학령전기, 국민학생기, 중.고교기와 20대자녀기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결혼기간은 결혼년도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결혼동시집단과 출생동시집단은 출생년도와 결혼년도로 측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한국 가족의 부부관계를 밝히기 위해 도시 부부를 대상으로 표집한 자료(서동인·정현숙, 1994)의 일부이다. 대상의 선정은 가족생활주기와 계층을 고려한 목적적 편의표집이며, 총 400쌍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317쌍(79.3%)의 자료가 회수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AS-pc로 통계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의 특징은 기초 통계 자료를 산출하였으며, 질문지의 신뢰도는 내적합치도 지수(α)를 계산하였다. 연구문제 1, 2, 3, 4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초통계 자료와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부부간의 인식 차이는 paired-t검증 하였으며, 출생동시집단별 남녀간 차

이는 t-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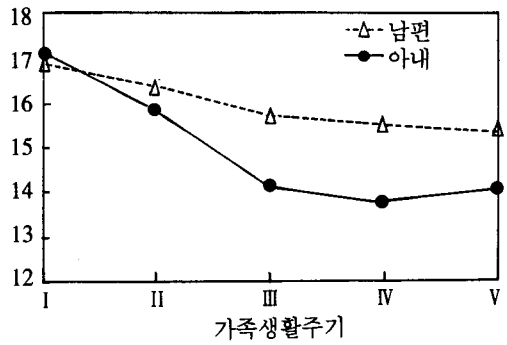
Ⅲ.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의 특징

본 연구의 대상은 신혼기 48쌍, 학령전기 69쌍, 국민학생기 73쌍, 중.고교기 74쌍, 20대자녀기 53쌍으로 총 317쌍의 부부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남편이 39.64세(SD=9.01)이며, 아내는 36.66세(SD=8.51)이다. 남편의 직업은 회사원과 공무원이 전체의 34%이며, 전문직이 16.8%, 서비스업 15.9%, 기업체간부/경영직이 13.7%이다. 부인은 64%가 전업주부이다. 이들의 소득은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150만원 이상이 전체의 51%로 소득 수준과 직업 분포로 볼 때 중류층이 많이 표집되었다.

2. 연구문제 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변화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의 상관계수는 .30으로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전체 조사대상의 결혼만족도는 3~21점의 점수범위에서 남편이 평균 15.91(SD=3.17), 부인은 평균 14.85(SD=3.69)로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높다(t=5.130, p<.001). 결혼만족도의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점수는 〈표 1〉,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결혼만족도

〈표 1〉과 〈그림 1〉에 의하면, 결혼만족도는 신혼기 남편과 부인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남편의 경우 20대자녀기까지 계속 낮아지고 부인은 중·고교기까지 점차로 낮아지다가 20대자녀기에 조금 상승하는 U자형의 곡선을 나타낸다. 결혼만족도의 부부간의 차이를 보면 신혼기와 학령전기는 부부간 차이가 없으나 국민학생기(t=4.147, p<.001), 중.고교기(t=3.700, p<.001), 그리고 20대자녀기(t=2.229, p<.05)에서 남편이 부인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낸다. 또한 가족주기에 따른 부인의 결혼만족도 변화의 폭은 남편보다 크게 나타났다.

3. 연구문제 2: 결혼기간별 결혼만족도의 변화

연구 대상의 결혼기간은 평균 12.07년(SD=9.06)으

〈표 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 자료 및 결혼만족도 점수, paired-t검증 결과

	남편 평균(SD)	아내 평균(SD)	t값	결혼기간	남편연령	아내연령	n
Ⅰ. 신혼기	16.92(3.44)	17.17(2.62)	-0.440	0-5	24-37	20-40	48
Ⅱ. 학령전기	16.36(2.59)	15.83(2.81)	1.50	1-7	25-39	23-35	69
Ⅲ. 국민학생기	15.71(3.00)	14.12(4.11)	4.147**	3-17	30-48	28-42	73
Ⅳ. 중고교기	15.45(3.23)	13.73(3.97)	3.700**	12-24	35-59	34-48	74
Ⅴ. 20대자녀기	15.30(3.54)	14.04(3.34)	2.229*	18-46	42-67	42-65	53
전체평균(SD)	15.91(3.17)	14.85(3.69)	5.130**	12.07	39.64	33.66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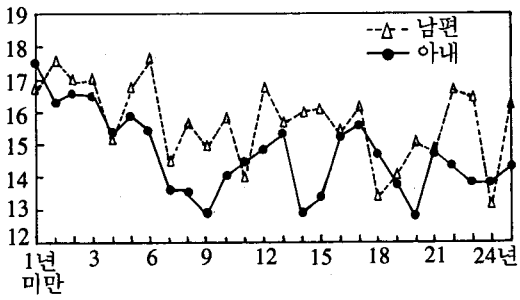
* p<.05 ** p<.001

로 1개월부터 46년까지 분포되어 있으나 결혼 25년 이상은 사례수가 제한되어 결혼기간을 1개월에서 25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결혼기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패턴을 살펴보기 위하여 두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년마다 25년 이상까지 결혼만족도의 변화 양상은 〈그림 2〉이며, 결혼기간을 5년의 급간으로 나누어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표 2〉, 〈그림 3〉과 같다.

〈표 2〉 결혼기간별 부부자료 및 결혼만족도 점수, paired-t검증 결과

결혼기간	남편 평균(SD)	아내 평균(SD)	n	t값	남편연령	아내연령
0- 5년	16.71(3.15)	16.71(2.63)	87	.0	24-39	20-34
6-10년	15.89(2.44)	14.33(3.86)	54	3.61***	29-40	28-40
11-15년	15.69(3.37)	14.16(3.96)	50	3.35**	33-51	32-48
16-20년	14.64(3.66)	14.72(3.63)	36	-.15	40-53	37-48
21-25년	15.00(3.58)	14.24(2.93)	21	2.36*	42-62	40-55
26년 이상	16.28(2.75)	14.16(3.92)	25	.85	53-67	46-65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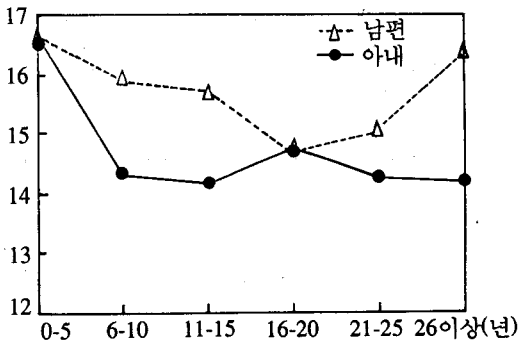


〈그림 2〉 결혼기간에 따른 부부의 결혼만족도

〈그림 2〉에 의하면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남편보다 낮으나 남편과 아내 모두 1년 단위마다 결혼만족도의 변화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결혼만족도 변화를 1년 단위로 분석할 때 본 자료의 경우 사례수가 8~33명으로 대표성이 부족하여 일반화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결혼기간을 5년 급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에 의하면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결혼기간 16~20년에 가장 낮으나 다시 상승하는 U-자형의 패턴을 보이나, 아내는 결혼후 6년이후 낮아진 만족도 수준이 이후 계속 된다. 따라서 〈그림 2〉과 〈그림 3〉을 비교해보면, 1년 단위로 분석한 결혼만족도의 다양한 수준이 대상을 집단화 함으로서 개별적인 특색이 사라지게 됨을 알 수 있다.

결혼만족도 점수의 하락을 〈표 1〉과 〈표 2〉를 통해 비교해 보면, 신혼기에서 자녀출산 이후 두 번째 단계인 학령전기로의 발달과정에서 남편은 16.92에



〈그림 3〉 결혼기간에 따른 부부의 결혼만족도

서 16.36으로, 부인은 17.17에서 15.83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결혼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할 때 남편은 16.71에서 15.59로 부인은 16.71에서 14.33으로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커 결혼만족도의 하락은 자녀의 출산으로 인한 가족주기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결혼기간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기간은 5년으로 분류하였으며 가족주기는

장자의 연령으로 구분하였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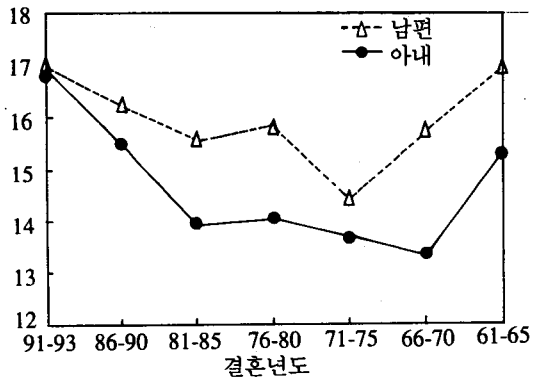
4. 연구문제 3: 결혼동시집단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변화

연구 대상의 결혼년도는 1957년에서 1993년까지 분포되었으나, 결혼연도가 1960년 이전인 6명은 사례수가 제한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혼연도를 1961년에서 5년을 급간으로 1993년까지 각 시기별로 결혼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부부간의 차이에 대한 paired-t검증한 결과는 〈표 3〉, 〈그림 4〉와 같다.

〈표 3〉 결혼동시집단별 자료 및 결혼만족도 점수, paird-t검증 결과

결혼시기	아내 평균(SD)	남편 평균(SD)	n	t값	남편연령	아내연령	결혼기간(년)
91년 이상	16.94(2.76)	16.93(3.24)	67	-.03	24-35	20-33	0- 3
86-90년	15.50(3.00)	16.24(2.51)	50	1.91	29-39	27-39	3- 8
81-85년	13.96(4.06)	15.57(3.06)	54	3.65*	33-47	29-40	8-13
76-80년	14.08(3.91)	15,84(2.89)	63	3.60*	31-51	32-48	13-18
71-75년	13.75(3.71)	14.45(3.94)	43	1.36	42-62	37-55	18-23
66-70년	13.39(3.15)	15.72(3.36)	18	1.98	47-57	43-54	23-27
61-65년	15.33(3.37)	16.92(2.23)	12	1.45	53-63	46-56	28-33

* p<.001



〈그림 4〉 결혼동시집단별 부부의 결혼만족도

다.

〈그림 4〉에 의하면 결혼동시집단별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부부 모두 W자형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남편들은 71~75년에 결혼한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다. 이들의 현재 결혼기간은 18년에서 23년까지 분포되어 있어 〈그림 3〉에서의 결혼기간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66년~90년까지 결혼한 아내의 결혼만족도 점수는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부부간 결혼만족도 차이는 81~85년, 76~80년 결혼집단의 남편들이 아내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다.

5. 연구문제4: 출생동시집단별 결혼만족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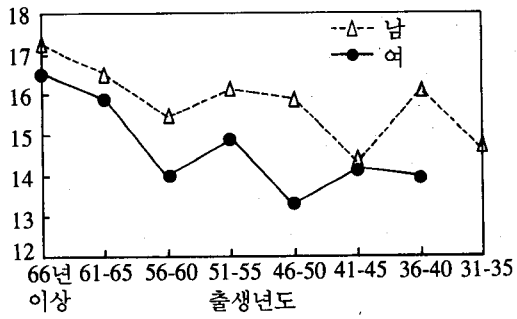
출생동시집단에 따른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출생한 해를 기준으로 분류되므로 〈표 2, 3, 4〉에서의 분류와는 달리 부부 쌍이 아니라 각자의 출생한 해를 중심으로 분류되었다. 연구대상의 출생연도는 1931년에서 1970년으로 출생년도를 1931년을 기준으로 5년을 급간으로 한 각 기간의 결혼만족도 점수는 〈표 4〉와 〈그림 5〉와 같다.

출생동시집단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남녀가 모두 W형을 나타낸다. 여자는 46~50년생이 가장 낮으며, 이들은 결혼기간이 15~28년이며 40대의 여성이다. 남자는 41~45년생이 가장 낮은 결혼만족도 수준을 보이며, 결혼기간이 13~28년이며 나이는 40대 후반에서 50대초의 남성이다. 이들의 결혼만족도를 남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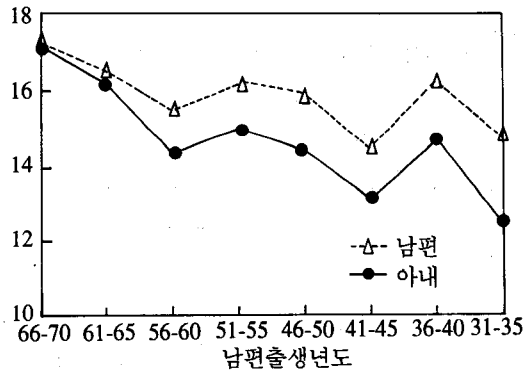
〈표 4〉 출생동시집단 남녀의 자료 및 결혼만족도 점수와 t검증 결과

출생연도	男만족도 평균 SD	女만족도 평균 SD	t	男			女		
				결혼기간	연령	n	결혼기간	연령	n
1966년 이후	17.27(3.71)	16.55(2.89)	.88	0- 3	24-28	22	0- 4	20-28	53
1961-65년	16.52(2.75)	15.85(2.75)	2.68**	0-15	28-33	61	0-13	28-33	60
1956-60년	15.47(3.02)	13.94(4.14)	2.48*	0-14	33-38	70	1-19	33-3	70
1951-55년	16.12(3.14)	14.87(3.84)	1.81	4-23	38-43	50	6-24	38-43	54
1946-50년	15.86(3.03)	13.31(3.79)	3.59**	12-25	43-48	57	15-28	43-48	42
1941-45년	14.36(3.95)	14.20(2.98)	0.81	13-28	48-53	25	15-45	48-53	20
1936-40년	16.15(3.28)	13.90(4.65)	1.42	18-45	53-58	20	22-36	55-64	11
1931-35년	14.63(2.50)	. .		22-39	58-63	8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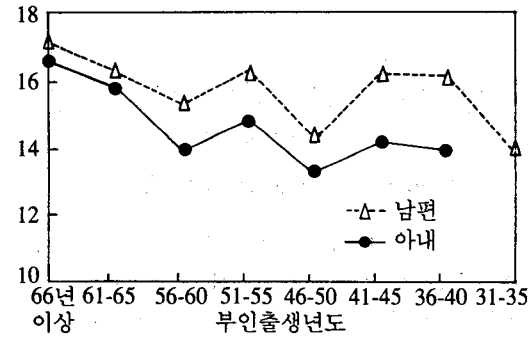
* p<.05 ** p<.01



〈그림 5〉 출생동시집단 남녀의 결혼만족도



〈그림 6〉 남편의 출생년도에 따른 부부의 결혼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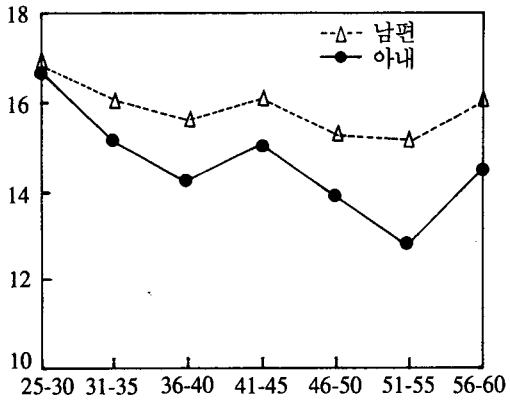


〈그림 7〉 부인의 출생년도에 따른 부부의 결혼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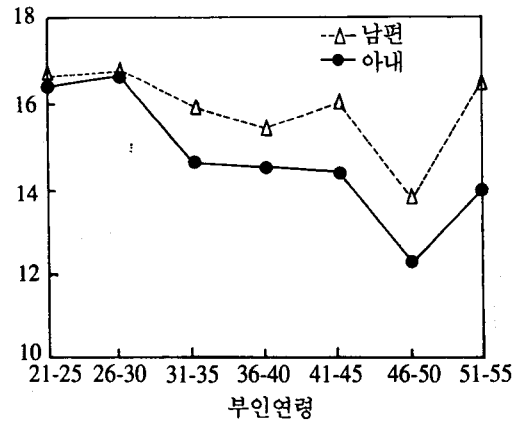
의 출생집단에 따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를 함께 나타내면 〈그림 6〉과 〈그림 7〉과 같다.

〈그림 6, 7〉에 의하면 결혼만족도는 W형의 변화 양상을 나타내며 가족생활주기, 결혼기간 및 결혼동시집단에 따른 결혼만족도와는 달리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거의 같은 패턴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남편은 31~35년과 41~45년 생, 아내는 46~50년 생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다. 41~45년생 남편들은 결혼기간이 평균 21년이며, 연령은 48~53세로 평균 50세 이다. 46~50년생 부인은 결혼기간이 평균 20년이며 연령은 평균 45세 이다. 즉, 아내들이 〈그림 3〉에서 결혼기간이 16~20년때 가장 낮은 결혼만족도 수준을 나타낸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인이나 남편 모두 51~55년생은 결혼만족도가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다. 따라서 부부의 결혼만족도 변화 양상은 부부의 출생년도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출생코호트의 연령의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연령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그림 8〉, 〈그림 9〉와 같다.



〈그림 8〉 남편의 연령집단별 부부의 결혼만족도



〈그림 9〉 부인의 연령집단별 부부의 결혼만족도

〈그림 8, 9〉에 의하면 결혼만족도의 W형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남편의 연령이 51~55세 때와 부인의 연령이 46~50세 때가 가장 낮은 결혼만족도 수준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류기준에 의해 결혼만족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의 기준인 가족생활주기와 결혼코호트, 출생코호트와 결혼기간은 상호관련성이 있는 개념이므로 결혼만족도의 변화 양상이 각 분류 기준의 독립된 효과로 해석 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 분류 기준의 상호 비교보다는 결혼만족도 분석을 위한 다양한 분석 기준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분류기준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변화 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몇가지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장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분류한 가족생활주기에 의한 결혼만족도는 U자 곡선을 나타내나, 결혼기간이나 결혼동시집단별, 출생동시집단별 및 남편과 아내의 연령집단별 결혼만족도는 W곡선을 나타낸다. 따라서 결혼만족도의 U자형 곡선은 가족주기에 따른 독특한 유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길어진 평균수명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20대 자녀기를 세분화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결혼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추후연구에서는 세분화된 가족생활주기의 구분이 요구된다.

둘째, 다양한 분류기준에 의해 분석한 결혼만족도는 결혼초기 부부간에는 차이가 없으나 결혼이 지속됨에 따라 계속 차이가 나타나며 이러한 부부간 차이는 결혼기간 내내 지속된다. 특히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아내의 결혼만족도보다 항상 높게 나타났으며, 아내의 결혼만족도의 변화의 폭이 남편보다 크게 나타나 부인들이 결혼생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 수준을 나타낸다. 결혼만족도 점수의 아내와 남편간의 변화 폭은 결혼기간과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분류에서 더욱 두드러 진다. 이는 결혼만족도의 변화의 폭이 여자가 남자보다 더 크다고 지적한 Michale과 Huston(1985)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가족생활주기와 결혼기간에 따른 결혼만족도 점수의 하락 폭을 비교해 보면 결혼만족도의 하락은 자녀의 출산으로 인한 가족주기의 영향보다는 결혼기간에 따른 영향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White와 Booth(1985), Michale과 Huston(1985)의 연구에서와 같이 결혼기간의 효과가 결혼만족도에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부 중심의 서구 사회와는 달리 첫 자녀 출생이라는 변화에 따른 어려움으로 비록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지적되고 있으나 이런 어려움들은 자녀로부터 얻는 만족감으로 인해 많이 상쇄되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예, 이숙현, 1990),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에 대한 인식이 Cuber와 Haroff(1965)의 부부 유형 중 활력이 약화되어가는 결혼유형(devitalized relationship)이 많음으로 나타나는 패턴으로도 유추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추후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결혼기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변화는 1년 단위와 5년 단위로 구분 했을 때 다른 패턴을 나타내므로 단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데는 각 단계안에서의 변이(variation)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예로 본 연구에서 마지막 단계로 설정한 가족생활주기의 20대 자녀기의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결혼기간이 25년 이상인 집단의 만족도 및 1961년 이전에 결혼한 집단의 만족도는 이전단계보다 상승하는 U자형인데 반하여 결혼기간이 길고 연령이 50대 후반을 차지하는 1931~1935년 생의 남자와 1936~1940년 여자 출생동시집단들은 결혼만족도가 이전단계보다 하강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그림 2〉에서 1년 단위로 결혼만족도를 분석했을 때의 다양성(variation)이 출생동시집단이나 결혼동시집단의 집단화에도 같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이 20대에서 60대 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무선작업을 통해 많은 수의 사례수를 포함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결혼기간이나 출생동시집단, 결혼동시집단 등 결혼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대상을 집단화하는 방법에 따라 결혼만족도의 패턴이 다양해 짐에 따라 연구자의 주된 관심 변인의 특성에 기초한 집단화 방법이 요구되며, 집단화를 위해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변화 등 객관적인 틀을 설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넷째, 남편이나 아내의 출생코호트와 그들의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참고: 그림 6, 7) 분석에서 부부간에 가장 유사한 패턴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가족주기 분석에서는 출생코호트보다는 혼인코호트의 가족생활주기가 더 유의함이 밝혀졌으나(예; 박혜인, 1987), 부부간의 결혼만족도 정도는 남편의 출생코호트나 부인의 출생코호트별 부부가 비슷한 패턴을 보여 연령에 따라 부부들은 비슷한 결혼만족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간 연령의 유사성은 결혼관계에서 부부간의 이해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도 볼 수 있다.

다섯째, W형의 결혼만족도의 유형에서 가장 낮은 결혼만족도 수준은 남편의 연령이 51~55세 때와 부인의 연령이 46~50세 때로 나타났다(그림 8, 9 참조). 본 연구 대상의 남편의 직업이 회사원과 공무원이 전체의 34%이며, 전문직이 16.8%, 기업체간부/경영직이 13.7%로 대부분이 55세 정년을 앞둔 남편들로서 이들의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때가 부인들의 연령이 40대 후반인 점으로 볼 때 결혼만족도의 변화의 폭은 자녀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결혼기간의 효과와 부부의 연령, 사회적 환경에 따른 변화로 보는 편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증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부부들만이 조사대상으로 수집되어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가족으로 일반화 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을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었을 때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비슷한 사례수로 구분되어 다양한 소득수준의 부부가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들이 도시 부부를 어느 정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의 직업이 상위직으로 약간 편포되었으며, 가족생활주기를 장자만을 고려하여 분류하였으며, 자녀의 수를 통제하지 못하고 60세 이상 연령범위를 많이 포함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참 고 문 헌】

1) 김득성(1989). 결혼만족도 척도에 관한 연구. 한

국가정관리학회지, 7, 85-94.
2) 대한가정학회지(1990). 가정학연구의 최신경향 III: 아동학 · 가족학. 서울: 교문사.
3) 박혜인(1987). 혼인코호트별 농촌가족생활주기 분석. 심재 허필숙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4) 서동인 · 정현숙(1994). 부부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가족학논집, 6, 1-36.
5) 유영주(1991). 신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6) 이숙현(1988). 한국 근로자 계층 부부의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지, 22, 161-181.
7) 이숙현(1990). 부모기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 가족학논집, 2, 1-27.
8) 정현숙(1991). 가족학 연구와 발달적 접근.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가족학 연구의 이론적 접근(pp. 171-196). 서울: 교문사.
9) Aldous(1978). *Family carrers: Developmental change in families*. NY: Wiley.
10) Burr, W.(1970).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of marriage over the life cycle: A random middle class samp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29-37.
11) Cuber, J., & Haroff, P.(1965). Five types of marriage. In J. Cuber & P. Haroff, *The significant American*. NY: Hawthorn Book Inc.
12) Duvall, E.(1977). *Marriage and the family development*. NY: J. B. Lippincott, Co.
13) Glenn(1990). Quantative research on marital quality in the 1980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18-831.
14) Glenn, N., & McLanahan, S.(1982). Children and marital happiness: A further speculation of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63-72.
15) Goldsteen, K., & Ross, C.(1989). Perceived burden of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10*, 504-526.
16) Kurdek, L.(1993). Nature and prediction of changes in marital quality for first-time parent and non-parent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6*, 255-265.
17) Langman, L.(1987). Social stratification. In M. Sussman & S. Steinmetz,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pp. 211-250). NY: Plenum.
18) Lavee, Y., Sharlin, S., & Katz, R.(1996).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marital quality. *Journal of Family Issues, 17*, 114-135.
19) Mattessich, P., & Hill, R.(1987). Life cycle and family development. In M. Sussman & Steinmetz, 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pp. 437-470). NY: Plenum.
20) McLanahan, S., & Adams, J.(1988).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13*, 237-257.
21) Ross, C., & Mirowsky, J.(1988). Child care and emotional adjustment to wives' employ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9*, 127-138.
22) Rollins, B. & Feldman, H.(1970).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20-28.
23) Schumm, W., & Bugaighis, M.(1986). Marital quality over marital care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595-618.
24) Schumm, W., Nicols, C., Schectman, K., & Grigsby, C.(1983).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to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by a sample of 84 married mothers. *Psychological Report, 53*, 567-572.
25) White, L., Booth, A., & Edwards, J.(1986). Children and marital happiness: Why the negative correl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7*, 131-147.